

찍을 땐 SLR클럽 vs 전시할 땐 줌인포토로그

# 좋은 사진 찍으면 소개시켜 줘!

초록 기운이 완연한 봄이다. 마음은 이미 봄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간다. 즐거운 여행길에 꼭 동반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카메라. 큰 맘 먹고 장만한 카메라를 들고 근사한 한 컷을 위해 떠난다. 그렇게 찍은 사진은 앨범 속에 간직되는 대신 웹에 전시된다. 사진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문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SLR 카메라도 일반화됐다. SLR 카메라 커뮤니티와 사진 솜씨를 자랑하는 인터넷 공간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글 김문영 객원기자

**한** 장의 좋은 사진은 울림이 크다. 한 장의 사진에는 보통 사람들의 눈이 지나치기 쉬운 순간이 담기도 한다. 이름답고 황홀한 순간, 환희에 찬 순간과 깊은 슬픔이 담긴 순간, 때로는 배꼽 잡고 포복절도하게 만드는 찰나를 잡는 것이 사진이다.

인터넷과 디지털카메라가 만남으로써 사진의 매력은 폭발했다. 디지털카메라는 누구나 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줬다. 전 국민의 필수품이 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에 이르면, 가히 디지털카메라 왕국을 떠올리게 된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진인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디지털카메라의 한계는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마니아들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는 사이트들을 만들고 모였다. 미니

홈피 혹은 블로그의 성장으로 사진을 찍는 계층도 전문가, 마니아를 넘어 광범위한 네티즌으로 번져 갔다.

## 아마추어 포토그래퍼 전성시대

디시인사이드처럼 디지털카메라 정보를 교환하고 촬영한 사진을 공유하는 사이트는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자신의 소소한 일상사를 촬영해 등록할 수 있는 블로그와 미니 홈피는 디지털카메라 보급에 기폭제 역할을 했다. 누구나 기록자, 발신자가 되었고 네티즌 스스로 창조의 주체가 됐다.

한편으로 일반 디지털카메라, 디시인사이드나 미니 홈피 등에 한계를 느낀 사람들도 생겼다. 누구나 갖고 있는 보통의 디지털카메라는 쉽고 저렴하게 사진을 찍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지만 쉽고 저렴한 사진의 즐거움

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디시인사이드는 카메라에 대한 고급 유저들의 활동도 활발하지만 '엽기갤러리'로 더 유명해졌다. 재미있는 사진, 웃기는 장면을 합성해 낸 사진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미니 홈피에 일상사를 등록하는 사진을 넘어 자신만의 작품을 창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겨 나기 시작했다.

다양한 카메라 종류만큼이나 카메라를 즐기는 사람들의 부류도 다양하다. 휴대전화 카메라나 보급형 디지털카메라로 일상사를 찍는데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문가 못지 않은 포토그래퍼를 꿈꾸는 이들도 있다. 아마추어 포토그래퍼들은 고급 기종을 다루며 정기적으로 출사를 떠나고 촬영한 사진을 웹에 전시한다. 바야흐로 아마추어 포토그래퍼 전성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SLR클럽



줌인포토로그

## 꿈꾸던 SLR 카메라를 손에 넣다

아마추어 포토히터 전성시대가 열린 배경에는 카메라 기술의 발달이 자리하고 있다. 프로 사진작가들은 고가의 장비를 쓴다. 디지털카메라가 등장하기 전에 프로들은 네거티브 필름도 아닌, 슬라이드 필름을 사용했다. 디지털카메라 기술의 발달은 프로조차도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슬라이드 필름 카메라 대신 고급형 디지털카메라를 선택하게 했다.

사진을 잘 찍고 싶어서 제대로 배워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장애 중 하나는 바로 고가의 장비였다. 적게는 수백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000만원대를 호가하는 장비를 갖겠다는 것은 사치에 가까웠다. 초창기 수천만원의 가격대를 형성했던 SLR 카메라(Single Lens Reflex, 일안 반사식 구조,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그대로 뷰파인더에 비춰준다. 렌즈를 다양하게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특히 프로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디지털 SLR 카메라의 등장은 수많은 아마추어 사진 애호가들에게 한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었다. 캐논, 니콘 등 주요 카메라 제조업체들이 DSLR 카메라를 양산하기 시작했고 가격대도 점점 낮아졌다. 현재 70만~80만원 선의 저가형 DSLR 카메라부터 600만원 이상의 고가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출시돼 있다. 전문가급 디카족이 늘면서 DSLR 카메

라의 보급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 전자제품유통센터의 경우 전체 카메라 판매량의 약 40% 가량이 DSLR 카메라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DSLR 카메라 커뮤니티인 SLR클럽(www.slrclub.com)은 지난 2000년 11월 반대걸씨의 개인 홈페이지에서 시작했다. '반모'라는 아이디를 쓰는 반씨가 개인 홈페이지 안에 'E-10사용자 포럼'을 운영했던 것이 시초다. 디지털카메라 자체가 생소하던 당시, SLR카메라는 아마추어가 사용할 만큼 만만한 가격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올림푸스에서 <E-10>이라는 DSLR 카메라를 200만원대에 출시했다. DSLR 카메라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반씨는 이 포럼을 통해 소수 DSLR 카메라 보유자들과 정보를 교환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실험과 연구를 하며 하나씩 DSLR 카메라를 이해해가던 시절이었다.

뒤이어 캐논에서도 300만원대 DSLR 카메라 <EOS-D30>을 출시했다. D30 사용자 김재현씨(아이디 '소리')는 D30 사용자를 위한 포럼을 개설했다. E-10 포럼과 D30 포럼은 따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두 포럼을 하나로 합쳐 2001년 www.slrclub.com 이라는 도메인의 새 사이트로 통합했다.

초기 70여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SLR클럽은 현재 20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사이트로 성장했다. 통합 사이트로 개편한 이후 1년 반 정도가 지난 2002년 10월 회원은 1만명, 다시 반 년 후인 2003년 3월 2만명 수준이었던 것이 2005년 6월 16만명, 2006년 3월 24만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2002년 2월에 처음으로 랭크닷컴 커뮤니티 분야 favorite site로 등록됐고 이후 사진/카메라 관련 커뮤니티 1위에 올랐다. 2005년 6월에는 전체 웹사이트 순위에서 100위권에 진입했다. 2006년 4월 기준으로 순위는 전체 웹사이트 중 84위다. 특별한 홍보 마케팅이 없는 사용자 커뮤니티로는 괄목할 만한 발전이었다.

## DSLR 카메라 관련 정보 총 망라

인터넷에는 수많은 카메라 관련 사이트가 있다. 카메라 제조와 판매업체 사이트, 사진인화, 사진 촬영 노하우와 촬영한 사진을 공유하는 사이트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카메라 조작법과 촬영 노하우를 주요 테마로 하는 사이트는 카메라 메이커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제외하고 사용자 중심 동호회만도 40여개에 달한다.

웹상의 카메라 사용자 동호회는 대개 기종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 니콘사용자모임, 펜탁스클럽, 미놀타 DSLR클럽 등 특정 메이커

나 기종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SLR클럽은 기종과 관계없이 모든 DSLR 카메라를 다룬다. 광학 DSLR 카메라를 다루며 전자식 뷰파인더 기종(EVF · SLR Like · 유사 SLR 등)이나 컴팩트형 디지털카메라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니콘과 캐논 사용자들이 시작한 사이트지만 현재 DSLR 카메라를 생산하는 모든 브랜드의 모임이 활발하다.

SLR클럽은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이트다. 사진작가를 비롯해 수많은 사진관련업 종사자들이 방문하며 다양한 직종, 계층의 사람들이 사진 애호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DSLR카메라 관련 지식과 정보가 넘치며 각종 사진 관련기기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강좌, 회원들이 촬영한 사진 작품들이 활발히 게시되고 있다.

SLR클럽의 메뉴는 크게 커뮤니티 · 사용자 및 강좌 · 카메라포럼 · 갤러리, · 공동포럼 · 장터 · 이벤트 · 인화 등으로 구성된다. SLR클럽의 모태라고도 할 수 있는 카메라포럼은 모든 DSLR 출시 브랜드를 망라한다. 캐논 · 콘택스 · 후지필름 · 코닥 · 미놀타 · 니콘 · 올림푸스 · 펜탁스 · 삼성 · 시그마 포럼이 개설돼 있고 각 포럼은 메인 게시판이나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외에 친목 · 신제품 · AS 등 테마별 게시판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포럼들은 포럼 운영자를 중심으로 회원들이 작성해 등록한 전문 자료들을 갖추고 있다. 각 포럼은 독립 사이트로도 손색 없을 만큼 자료가 풍부하고 깊이가 있다.

커뮤니티는 자유게시판 · 오프라인 · 자료실 · 이벤트 등 회원 친목 도모 성격이

강하다. 기종과 상관없이 DSLR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메뉴는 사용자 및 강좌 코너와 공동포럼이다. 사용자 및 강좌 코너의 하위 메뉴는 사용자 · 강좌 · 에세이 · 기타 사용자 · 필드 테스트 등으로 구성된다. 사용자 게시판은 카메라 · 렌즈 · 액세서리 등으로 다시 주제가 구분돼 쉽게 원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공동포럼은 렌즈와 액세서리 · 디지털암실 · 보정, · 사진 전반을 다루는 게시판들로 구성된다.

갤러리는 주제에 맞게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 조언을 구하고 싶은 사진을 올리거나 토론할 수 있는 습작 게시판, 선정된 사진을 별도로 등록하는 작품 게시판으로 구분된다. 장터 코너는 회원 간 카메라 매매, 공동구매 등이 이뤄지고 신제품 출시일정이나 가격, 구입처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게시판이 마련돼 있다.

### 사진작가의 꿈에 도전하다

사진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떻게 하면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 관련 책을 사보거나 웹을 검색해 촬영 노하우를 찾고 좋은 카메라를 장만하기 위해 투자하며 시간을 내 촬영 연습에 몰두한다. 스스로 좋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됐다는 생각이 들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칭찬을 듣고 싶기도 하고 고수들에게 자기 솜씨가 어떤지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고도 싶다.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웹만큼 훌륭한 전시장도 없다. 비용과 시간을 매우 효율적으로 투자하면서도 제한 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웹이다. 비록 웹 전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컴퓨터 모니터 상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 해도 아마추어 사진 애호가들에게는 그리 걱정할 일이 못 된다.

사용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은 셀 수 없을 만

큼 많다. 개인 블로그도 있고 사진이나 카메라를 테마로 한 웹사이트도 있다. 사진을 직업으로 하는 포토그래퍼 뿐 아니라 취미로 하는 사람들 중에도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 중에는 아마추어라고 보기 힘들 만큼 좋은 솜씨를 가진 '꾼'들도 있다.

이러한 공간은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서 네티즌이라면 누구나 찾아와 사진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이다. 사진을 찍은 사람은 게시판에 등록된 글, 사진 게시물에 등록하는 답글을 통해 방문자들과 의사소통한다. 그 중에는 찬사도 있고 조언도 있다. 혹평도 있고 때로는 비난과 비방의 글도 있다. 사진을 찍어 올리는 사람은 때로 갈등을 느낀다. 사진에 대해 좀더 진지한 관심을 가진 사람, 자신보다 사진을 더 잘 아는 사람, 혹은 전문가들 과도 소통하고 싶어진다.

썸인포토리고는 이러한 요구를 해결해주는 사이트다. 단순히 즐기는 수준을 넘어 공부하고 연습하는 사람들, 프로 못지않은 솜씨를 가진 아마추어들이 경연하는 공간이다. 아마추어 사진 애호가들이 사진을 등록하고 사진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정기적으로 사진 공모전이 열린다. 공모전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면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에 입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아마추어 사진 애호가들에게 프로로 활동할 길이 열리는 셈이다.

### 철저한 콘텐츠 관리정책

썸인포토리고는 썸인이라는 사이트의 하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조와 메뉴가 단순하고 알기 쉽다. 크게는 공모전 · 갤러리 · 추천갤러리 · 사진검색 · 게시판 · 출사홍보 등의 코너로 구성된다. 이 사이트의 핵심인 공모전은 한국사진작가협회 후원으로 협회 입회점수를 부여하는 코너다. 공모전을 통해 입회를 위한 규정점수를 획득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협회는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입회자격을 규정한다. 정회원 자격 중 하나는 대한민국 사진대전을 비롯, 협회가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전국 규모의 공모전, 시도미전, 사진대전 등에서 50점 이상 득점한



경우가 포함돼 있다.

공모전은 2개월에 한 번, 테마별로 열린다. 각 공모전마다 1인당 다섯 작품까지 등록할 수 있다. 이용자가 작품을 공모전에 출품하려면 일정한 줌인 포인트를 획득해야 한다. 출품되는 사진 수준을 관리함으로써 정확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공모전에 한 작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3,000포인트가 필요하다. 포인트는 다른 회원이 등록한 사진을 추천하거나 감상평(답글)을 올리거나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등의 활동으로 획득할 수 있다.

사진 심사는 줌인과 협회가 추천하는 4인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심사분야별 점수를 인터넷에 공개해 심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금상·은상·동상·가작·장려·입선으로 구분해 시상하며 입회점수는 2점부터 4점까지 부여한다. 금상 수상자에게는 디지털카메라를 부상으로 제공한다.

공모전 외에 사진을 등록할 수 있는 갤러리 메뉴가 마련돼 있다. 그런데 보통의 사이트와 달리 갤러리에 사진을 등록하는 데도 포인트를 사용해야 한다. 갤러리에 등록할 때는 1,000포인트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은 사진 등록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바탕에 깔려 있다. 포인트를 취득하려면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답글을 등록하는 등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진 등록 외의 다른 분야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줌인과 동일하게 세분된 회원 등급 정책을 유지하는 것도 특징이다. 사용자들이 사진을 보고 점수를 추천하게 되는데 이렇게 획득한 점수에 따라 일반회원부터 최우수회원까지 구분된다. 우수회원과 최우수회원에게는 줌인포토리그 활동에 우선적 자격을 부여한다.

공모전과 갤러리로 단순하게 구성된 사이트지만 연계 사이트가 있어 관련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사진교실·인화·쇼핑 등이 연동되며 카메라·사진·문화를 테마로 다양한 기획기사와 인터뷰, 칼럼 등으로 꾸민 웹진 사이트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디지털카메라 관련 사이트들의 큰 특징은

세분화, 전문화라고 할 수 있다. 디시인사이드는 디지털카메라 관련 웹사이트의 대표 주자였고 지금도 위세를 떨치고 있다. 디시인사이드는 국내외 디지털카메라를 총망라해 정보를 제공한다.

### 이름다운 아마추어리즘

반면 SLR클럽이나 줌인포토리그 같은 사이트들은 규모면에서는 디시인사이드 같은 종합 사이트와 비교가 되지 않지만 자기만의 확실한 색깔을 갖고 있다. 디시인사이드는 사진이나 카메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조차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갖고 있다. 웬만한 유머사이트보다 기발하고 재미있는 사진들이 가득하다. 반면 SLR클럽은 SLR카메라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별 재미가 없는 공간이다. 줌인포토리그도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구조다.

이러한 의미에서 SLR클럽이나 줌인포토리그는 카메라와 사진 자체에 관심이 있고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사이트라고 할 수 있다. 그 대신 모인 사람들은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생성하고 교류한다. 회원수가 많지 않아도 SLR클럽의 모든 게시판은 하루 수십 건의 새로운 게시물이 등록될 만큼 활발히 운영된다. SLR클럽은 지난 3월 렌즈 중심의 DSLR 가이드북 <SLR클럽의 DSLR 촬영 가이드북>을 출간했다. 우수 회원들과 운영진이 집필하고 감수한 이 책은 여러 아마추어 사진 작가들의 갤러리를 중심으로 쉽게 DSLR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사용자 동호회로 출발한 SLR클럽은 최근 수익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사이트 내에 인화 코너를 신설하고 운영하기 시작했다. 운영진은 회원들이 좋은 품질의 인화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했으며 수익금은 클럽 발전기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화서비스는 문화공방이라는 업체와의 제휴 방식으로 제공된다.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연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SLR클럽의 구내 인화만을 담당하는 인화소를 개설했다.

줌인포토리그는 카메라 제조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여러 한계를 갖고 있다. 제

### SLR클럽

디지털 방식의 SLR(Single Lens Reflex) 카메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사이트다. 디지털 SLR 카메라 기기, 촬영법 등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한다. 온라인과 더불어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회원 간 친목을 다지기도 한다. 기업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순수 마니아들의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다. 2000년에 개설된 개인 홈페이지에서 시작해 2001년 www.slrclub.com 이라는 도메인을 분리, 사이트를 개편하고 현재 모습에 이르고 있다.

### 줌인포토리그

카메라 제조회사인 삼성테크윈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줌인(www.zoomin.co.kr)의 하부 사이트다. 줌인은 케녹스 카메라 전반에 대한 홍보 내용과 사진교실, 갤러리, 사진인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진 전문 사이트. 줌인 포토리그는 '사진 공모전'을 주요 테마로 한다.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 후원하는 온라인 사진공모전을 연다. 협회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활동한다. 줌인의 코너들-사진교실·앨범·인화·웹진·사진공작소 등과 연동돼 있다

품 홍보 사이트가 아닌, 사용자를 위한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포토리그 회원을 위한 그룹 전시회를 준비하는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카메라와 사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낱알이 발전하는 카메라 기술, 전국으로 확산된 인터넷 인프라,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점점 중요해지는 여가생활에 대한 요구까지 디지털이미지 분야의 성장을 촉진한다. 이에 따라 프로 못지않은 열정과 기술, 노하우를 가진 아마추어들도 등장하고 있다. 카메라, 사진 관련 정보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더욱 전문화된 웹 공간이 요구된다. SLR클럽과 줌인포토리그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내용으로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점점 진화하고 있다. ●